

6

천지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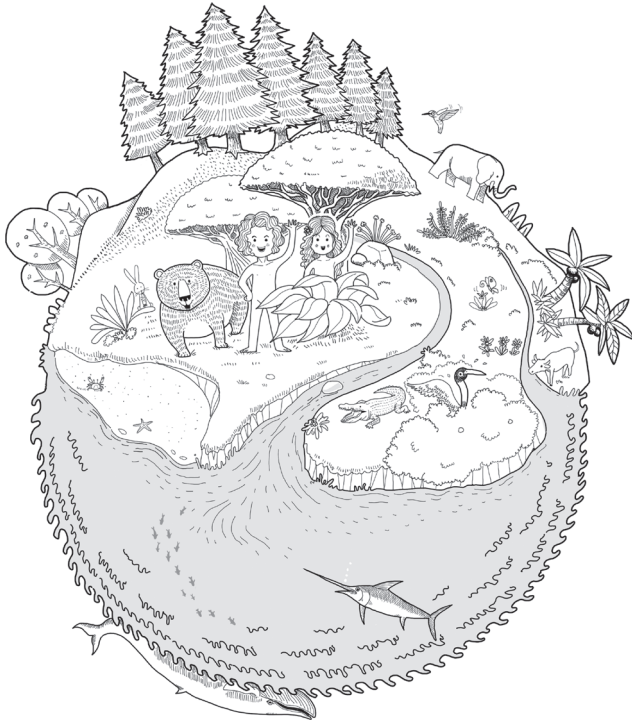
창 1장, 행 17:23~29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55장 (아주 먼 옛날)

오늘 배울



1.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1~3)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 3:4)



을 이해하기

하나님께서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6일 동안에 적절한 순서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법인 양심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스스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직접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세계를 친히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작은 풀 한 포기에서부터 거대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뿐 아니라 돌보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으뜸가는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여호와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18)

For thus says the LORD, Who created the heavens, Who is God, Who formed the earth and made it, Who has established it, Who did not create it in vain, Who formed it to be inhabited: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Is 45:18)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창세기 1장을 읽고 창조의 순서에 따른 내용을 적어 봅시다.

1) 첫째 날.

2) 둘째 날.

3) 셋째 날.

4) 넷째 날.

5) 다섯째 날.

6) 여섯째 날.

2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몇 번째 날입니까(창 1:6~8)?

3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날은 언제 였습니까(창 1:26~31)?

4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요 4:24)?

5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안식하신 날은 몇 번째 날입니까(창 2:1~3)?

6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창 1:3

수

창 1:6

화

창 1:11

↑

창 1:14

↓

창 1:22

↓

창 1:27

↓

창 2:1~2



잠자리의 놀라운 비행능력

늦은 여름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잠자리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잠자리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에 따라 4천 5백여 종류나 됩니다. 잠자리의 생활사는 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잠자리가 알을 물 속에 낳으면 부화하여 작은 유충이 됩니다. 이들이 물 속에서 유충으로 생활하는 기간은 종류에 따라 수 주에서 수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유충으로서의 기간이 차면 육지로 올라와 나무나 풀 위로 기어 올라가 변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변태가 시작되면 표피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부드러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날개가 단단하게 굳으면서 잠자리는 오색 찬란한 자태를 뽐내며 창공을 날기 시작합니다. 비록 몸체는 작지만 잠자리의 날개는 날기에 편리하도록 놀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쌍의 날개는 가볍고 투명한 막으로 되어 있지만, 가는 관이 혈액에 연결되어 있어 날개에 편리하고 충분한 힘을 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관에는 혈액 뿐만 아니라 신경도 가지고 있으며, 산소도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날개에는 강력한 근육이 부착되어 있어 초당 40번씩 저을 수 있으며, 두 쌍의 날개는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방향 전환과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뒤로도 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헬리콥터의 기본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입니다.

잠자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 눈에 있습니다. 한 쌍의 눈으로 되어 있는 잠자리의 눈은 각각 별개의 렌즈를 갖는 3만개의 홑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는 머리를 돌리지 않고도 넓은 지역의 조그만 움직임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잠자리가 과연 어떻게 저절로 진화되어 생길 수 있었습니까? 이처럼 완벽한 비행능력을 갖춘 날개가 어떤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는지 어떤 화석도 현재의 잠자리와 다른 진화되기 이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눈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욱 복잡한 잠자리의 눈의 진화과정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잠자리의 화석은 현재의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화석은 양쪽 날개를 합쳐 1m 정도 되는 것도 있을 정도로 지금의 잠자리보다 몸집이 클 뿐입니다. 잠자리와 같은 작은 곤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 12:7~9)

질문 있어요~



정경(正經)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함께 66권의 성경을 믿는데 이를 정경(正經)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anon' 인데, '곧은 막대기' 또는 '기준이 되는 자(尺)'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외경(外經)이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책을 말합니다. 정경의 결정 과정을 보면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정경은 A.D. 90년 유대인 랍비들의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그렇다고 그 회의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단번에 결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던 책들을 모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까지 유대인들에게 널리 읽혔던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들이 후에 구약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현재의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여러 교회에 전파되어 읽혔던 글들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디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영양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몰라도 믿고 먹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누가 만들었는지, 부속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원리로 달릴 수 있는지 몰라도 믿고 운전을 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 34:16)